

전남 이어 광주 학생 첫 감염...교육당국 방역 고심

코로나19 확산 비상

확진 초등생 사흘간 수업 들어 교사·학생 접촉자 40명 검사 졸업생 면담 교사 줄줄이 격리 학교 현장 방역·학사 일정 차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초등학생 확진자가 처음 나오면서 지역 교육당국이 추가 확진 우려 등으로 초비상이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민간수탁기관 검사 결과 광주 일동초 3학년 남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 107번 확진자로, '광주 첫 초등생 감염자'다. 이 학생은 99번 확진자인 어머니(30대)와 지난달 28일 일곡중앙교회 예배에 참석한 후 무증상 감염된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이 사흘간 수업과 방과 후 교실 등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건·방역당국은 담임 교사 1명, 교과 전담 교사 1명, 방과 후 교실 강사 1명, 문화·예술강사 1명, 같은 반 학생 16명, 방과 후 교실 수강생 20명 등 총 40명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 시 교육청은 일곡중앙교회 신자들이 북구지역에 퍼져 있고, 일곡지구 30여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도 북구 거주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북구지역 모든 학교의 등교수업을 중지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다만 고3 학생들의 경우 정상적으로 등교수업을 진행한다. 북구지역 학교시설은 유치원 86곳(병설 유치원 37곳 포함), 초등학교 45곳, 중학교 27

곳, 고등학교 20곳, 특수학교 2곳 등 180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원격수업이 장기화될 경우 당초 6일부터 진행하려던 학교별·학년별 축소 등교수업과 이어지는 기말고사와 수능 대입 준비, 학사 일정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에서는 목포 하당중 1학년 남학생이 지난달 23일 광주를 다녀온 할머니로부터 무증상 감염돼 같은 달 28일 전남 23번째 확진자로 판명된 데 이어, 이날 영광공고 한 졸업생이 확진(전남 27번)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학교 교직원 5명이 자가격리됐다.

이 졸업생은 군복무를 마친 뒤 취업 문제로 지난 1일 학교를 방문했고, 재학 당시 담임교사와 취업 담당교사 등과 면담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일에는 동료 교사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던 전남 화순 모 고교와 나주 모 특수학교 교사 등 전남지역 교직원 60여명이 광주 48번(60대 남성, 북구 오치동)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겹쳐 검사와 함께 자가격리 조치했다.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잠복기 등을 고려해 출근이 중단되고 자가격리됐다.

이로 인해 해당 학교들에서는 지난 2일 4교시까지만 수업을 진행한 뒤 학생들을 조기귀가시켰고, 3일에는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등 수업 차질을 빚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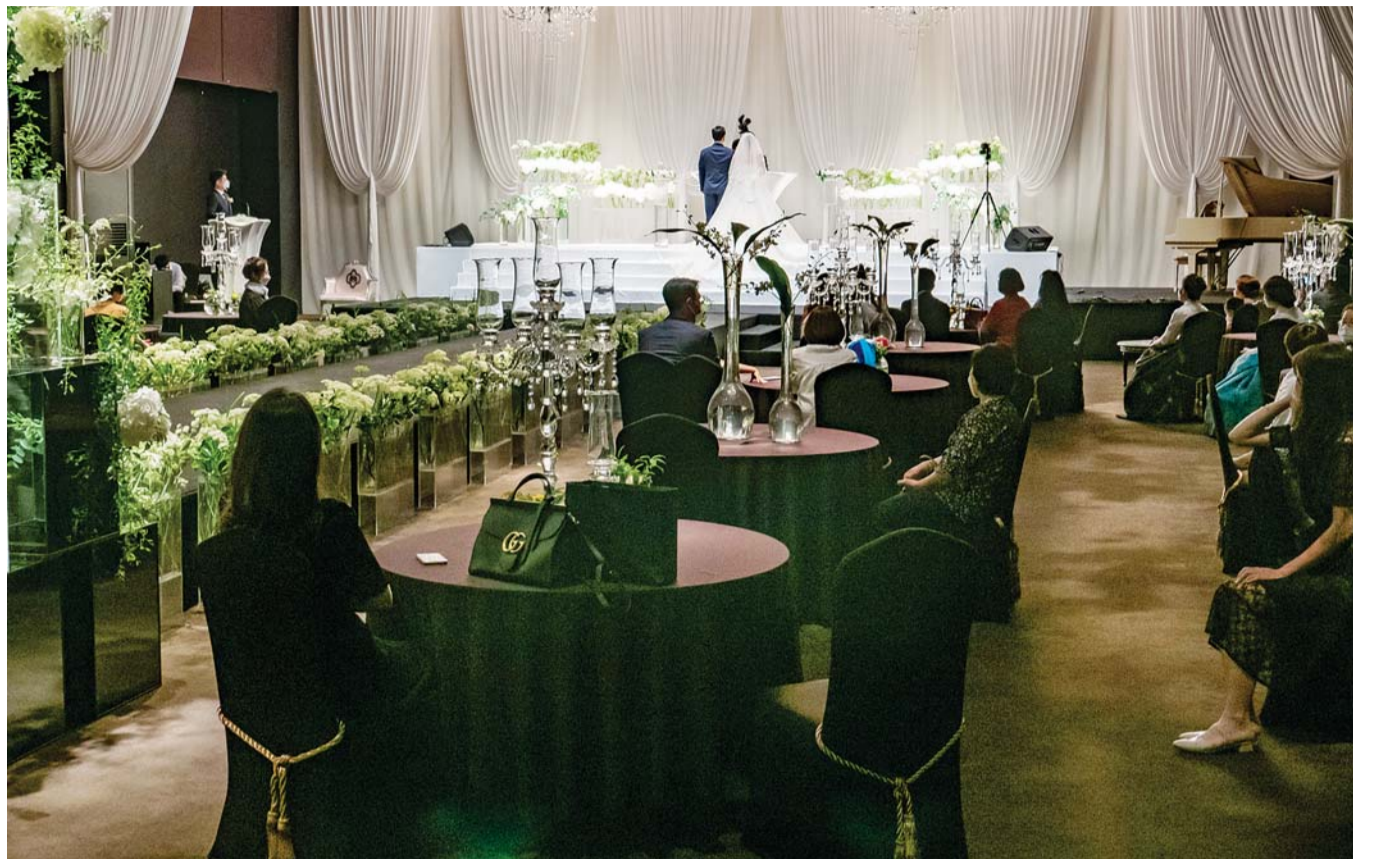
이처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교육당국은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에 대한 '감염 여부 검사 결과'와 별개로 24시간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에 나섰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지역 확진자 감염 현황

(6월 27일~7월5일 15시 기준) ※해외유입 2명 제외

장소	성별	증상
광복사 관련	남 31	유증상 43
금양오피스텔	여 44	무증상 32
사랑교회	계 75	검사중 32
씨씨씨 아카데미		
한울요양원		
일곡중앙교회		
연령대	발생추이	
10대 1	6월 27일 4	
20대 1	28일 3	
30대 5	29일 3	
40대 7	30일 12	
50대 20	7월 1일 22	
60대 24	2일 6	
70대 13	3일 8	
80대 1	4일 15	
90대 3	5일 2	
지역		
동구 13		
서구 3		
남구 3		
북구 44		
광산구 12		
계 75		



광주와 전남지역의 방역단계를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수위를 높인 5일, 광주지역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광주 서구의 한 예식장에서 입장객 수를 50인 이하로 줄인 채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첫 공립 대안학교 명칭 '송강고등학교' 확정

내년 3월 담양 봉강면에 개교

2021년 3월 담양군 봉강면에 개교 예정인 전남 첫 번째 공립 대안학교 명칭이 '송강고등학교'로 확정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스스로 서고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꿈꾸는 교육공동체'의 교육 비전을 가진 공립 대안학교 교명을 공모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교명 공모에는 총 116편이 응모했으며 1차 심사를 통해 5편의 후보자를 골

랐다. 2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최종 대상 후보자 3편을 선정하고 교육청 명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당선자를 확정했다.

당선작은 우리나라 수종을 대표하는 소나무처럼 학생들이 곧고 푸르기를 바란다는 뜻의 '송(松)'과 강물처럼 자유로운 사고를 지니기를 희망하는 '강(江)'을 의미한다.

또 '송강'은 학교 주변에 흐르는 중앙천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도 교육청은 '송강고등학교'로 명칭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8월 2021학년도 신입생 전형 요강을 공고한 뒤 신입생 모집 홍보와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송강고등학교는 담양군 봉산면 양지리 옛 봉산초 양지분교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40억원, 전남도교육청 예산 28억원, 담양군청 예산 10억원 등 총 78억원을 재원으로 설립되며 2021년 3월 개교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이사장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선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제3기 정이사 이사회를 이끌 이사장으로 김이수(사진) 전 헌법재판관이 선출됐다.

5일 조선대에 따르면 지난 3일 이사 9명 전원과 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실에서 열린 조선대학교 제3기 이사회 첫 번째 회의에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이사장직에 선출됐다.

김 선임 이사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합격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역임했다.

조선대는 최근 2년 7개월 만에 임시이사 체제를 종식하고 정이사 체제에 들어갔다.



조선대는 학원민주화를 통해서 지난 1988년 옛 경영진이 물러나고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10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옛 경영진의 측근 이사들이 포함된 제2기 정이사들과 구성원 간 갈등으로 2017년 11월 임시이사체가 파견됐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이사장 선출에 따라 제3기 이사회가 대학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성공적인 대학혁신을 이루고, 향후 공영형 사립대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새단장 오픈

광주 동부교육지원청이 누리집(dongbu.gen.go.kr)을 새롭게 개편했다.

개편된 누리집은 학교와 지원청 소식을 포함해 동부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가독성과 정보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SNS 공유와 페이지별 평가를 통해 사용자와 소통도 강화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격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와 원활한 업무환경 기능도 제공했다.

김철호 광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행복한 동부 교육을 위해 소통하는 누리집이 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민원인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북구, 청년·실업자 400명에 수당 지급 1인당 50만원씩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실업자들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5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오는 8월까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직장을 잃은 '청년·실업자 구직희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2억 원의 구비로 400명을 선정,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한다.

이런 사업은 '청년구직 희망수당'과 '실업자 재취업 희망수당' 2개 분야를 지원한다. '청년구직 희망수당'의 경우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 3일 이후 광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실직하고 현재까지 미취업 상태인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북구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이며 시·군·구,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도 지원 가능하다.

'실업자 재취업 희망수당'의 경우도 같은 기간 실업급여 수급이 만료된 사람 중 현재까지 미취업 상태인 북구 거주자가 대상이다.

모집기간은 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은 북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관련 서

류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북구청 현장 접수는 16일부터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북구청 일자리정책과로 하면 된다. 수당은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과 실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名 作 名 作 名 作

광화문父子작명가

성명학 姓名學 數理의 영동 靈動

- 一數 권위두령지상 權威頭領之像
- 二數 고독빈곤지상 孤獨貧困之像
- 三數 지덕겸비지상 智德兼備之像
- 四數 사산불리지상 捨散分離之像
- 五數 화목통합지상 和穆統合之像
- 六數 순화적덕지상 順和積德之像
- 七數 용감강건지상 勇感強健之像
- 八數 자취성공지상 自取成功之像
- 九數 외부내빈지상 外富內貧之像
- 十數 매사중단지상 每事中斷之像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 당시의白山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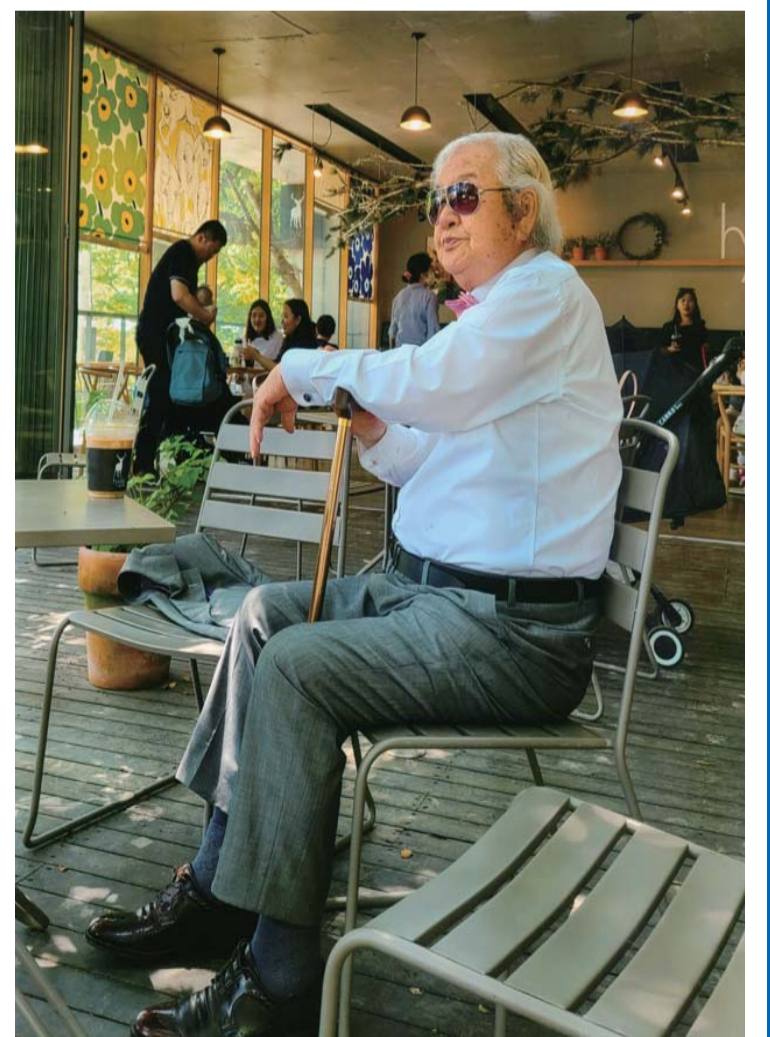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白山 선생 (MBC TV 방영)

작명가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大名작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도봉산山中카페에서 망중한忙中閑의白山